



NOH SANGHO · HOLY



노상호 · 홀리

문의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02-541-5701 www.arariogallery.com
이미지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4월 20일까지 노상호 개인전 <홀리(HOLY)>를 연다. 이번 전시는 온라인에서 발견한 저화질 이미지를 재료 삼아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온 노상호의 근작을 집중 조명한다. 동시대 미디어 환경을 핵심적인 참조 요소로 삼아 작업하는 노상호는 낯선 기술의 영향에 동시적으로 반응하고자 노력한다. 직접 온라인을 서핑하며 이미지를 수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시가 생성한 수많은 이미지를 가운데 직관적으로 선택한 도상들을 화면으로 끌어오게 되면서 ‘홀리’ 연작이 탄생했다.

‘홀리’는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의 또 다른 창작 주체로서 새롭게 등장한 시의 존재를 작업 과정에 적극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시가 만든 이미지를 재료 삼아 재구성한 화면은 실재하는 세계를 닮은 한편, 보다 극적인 장면으로서 완성된다. 작가는 시가 만든 특정 장면들이 선사하는 경이와 공포의 양가적 감정을 신화 및 종교적 성스러움에 빚대어 본다.

‘홀리’의 소재는 시가 만들어 낸 이미지들이다. 노상호는 주로 문자 대신 자신의 기존 작품 이미지를 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재해석을 유도한다. 출력된 결과물 가운데 도상을 선택

- 01_ 홀리 HOLY, 2024, Acrylic on Canvas, 300×300cm (150×150cm×4)
- 02_ 홀리 HOLY, 2024, Acrylic on Canvas, 116.8×91cm
- 03_ 홀리 HOLY, 2024, Acrylic on Canvas, 90.9×72.7cm
- 04_ 홀리 HOLY, 2024, 4 채널 비디오 4 channel video, 1 min, Ed. 1 of 10
- 05_ 홀리 HOLY, 2024, 3D 프린트 3D Print, 35×25×25cm, Ed. 1 of 10





06_ 홀리 HOLY, 2024, Acrylic on Canvas, 233.6×91cm (116.8×91cm×2)

07_ 홀리 HOLY, 2024, Acrylic on Canvas, 116.8×91cm

08_ 홀리 HOLY, 2024, Watercolor on Canvas, 65×53cm

09_ 홀리 HOLY, 2024, Acrylic on Canvas, 90.9×72.7cm

10_ 홀리 HOLY, 2024, Acrylic on Vintage Wardrobe,
Water Based Paint on Wood, Fabric, Candle, Approx.
225.5(h)×224×275cm, Collaborated with KIM Donghee



하여 새로운 회화의 화면으로 옮겨오는 방식이다. 화면에 자주 보이는 '불타는 눈사람'도 그렇게 얻은 도상 중 하나다. 불타는 커다란 눈사람의 형상이 자신의 주제를 함축한 상징과 같다고 여겨, 화면에 거둬 묘사하게 됐다.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신비하고도 기이한 광경들은 디지털 스크린을 건너 회화의 화면 위에 다시금 재현된다.

'홀리' 연작은 회화를 중심 삼아 3D 프린터로 출력한 조각, 3D 영상 제작 프로그램으로 만든 영상, 설치 작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해석된다. 갤러리 4층 전시 공간에 선보인 설치 작품은 작가가 수집한 빈티지 옷장을 화폭 삼아 그림을 그린 후 목재 구조물 및 패브릭, 양초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전시 공간 내 기둥에 해당 옷장이 비스듬히 끼어 있는 모습으로 연출된다. 게임 속 글리칭(Glitch, Glitching) 현상, 즉 기술 오류로 인해 장면 속 요소가 기이하게 뒤엉킨 상황을 재연한 결과물이다. 한편으로는 전체의 작품이 일종의 제단과 같은 모양새로 보이기를 의도했다. 작품은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 사건의 한 사례를 실제 장소 안에 제시하여 보여준다.

